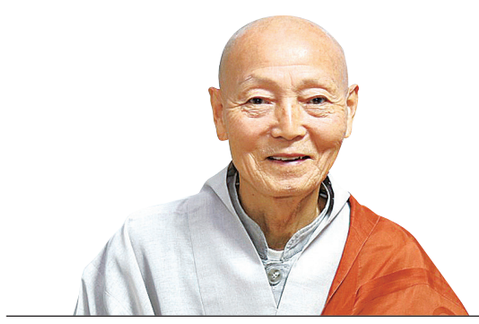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울산 정토사

울산 정토사, 정토세상 가꾸기 터전으로

울산 정토사 덕진 스님



1988년 울산 정토사 창건 후
지역사회 거점 역할도 맡아
휴식제공 안식처 역할 자임
마음치유로 지역민 보듬어

40년 어린이 청소년 포교 함께
베트남 불자 한국 정착 돕고
우리말 불교의식 보급 앞장서



덕진 스님은 남다른 포교원력을 지닌 선지식이다. 스님은 지역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 공간을 구성하여 전법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정토사서 운영하는 태화합창단 공연 모습.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 스님)는 한국 산업화의 상징과 같은 도시 울산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위안을 주는 곳이다. 평온함과 자기 성찰의 명소로 아름다운 풍경 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 신행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토사는 울산 도심 남산자락에 있어 교통이 편리해 일반 시민들도 즐겨 찾는 도심 전법 도량이다. 정토사에 들어서면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감실 팔불상을 만날 수 있다. 실내가 아닌 야외 언덕에 조성한 감실 팔불상은 채색된 불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과 동·남·서·북·중의 오방불을 봉안했다.

이곳 정토사는 불교대학, 각종 전시회와 문화교실,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포교와 시민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골 봉안당 '극락원'도 운영하고 있다. 울산의 숨겨진 보석과 같은 정토사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시간을 초월한 여행과 특별한 매력으로 현대사회의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토사 경내에 들어서면 한국 전통 건축미와 자연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이한다. 본당인 대웅전은 한국의 전통건축방식으로 지어졌고 안팎의 공간에 불교의 가르침을 묘사한 불화로 장식되어 있다. 경내 마당에는 미륵불의 화신으로 불리는 포대화상과 관세음보살 입상, 삼층석탑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최근 정토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각계각층에 알리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살아있는 전법 도량의 역할도 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이며, 명상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평화로운 휴양지 역할을 하며 고요한 주변 환경은 영성과 자연의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

포교전진기지 거듭나는 정토사

이러한 정토사 중흥에는 지난 40여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군인, 병원 환자, 다문화 가족 등 각계각층 간 적정한 프로그램으로 부처님 법 알리는 데 앞장서 온 덕진 스님이 있다. 덕진 스님은 여러 인연과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1988년 정토사를 창건했다. 전방위 포교의 전진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원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포교를 하거나 불사를 하려면 정당하고 뚜렷한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포교와 정토사 불사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덕진 스님은 은사이신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1980년 부산 금화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이때부터 부산 국군병원 포교를 시작으로 전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스님은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관음신앙과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의 병 치유 등에 대해 법문을 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여 많은 환자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40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

이 무렵부터 스님은 어린이 포교 활동도 시작하여 부산 청룡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법하였고, 그 것이 계기가 돼 현재까지 어린이 포교 활동을 40여 년간 이어 오고 있다.

1988년 정토사를 창건한 후 지속하고 있는 정토사 어린이 법회에는 매주 150여 어린이가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인원이 감소했지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불교학교에는 3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학령인구가 감소 속에서 놀라운 결과다.

덕진 스님은 어린이법회 침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불교가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 고 강조한다.

"어린이들의 수가 많이 감소했고 종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불교가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어린이 법회가 어려워진 듯합니다."

스님은 사찰이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함께 놀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이 되어야 사찰을 찾는다는 지론이다. 이러한 스님의 전법 방향은 어른들을 위한 불교대학 개설에서도 드러난다. 덕진 스님은 울산 정토사 창건 후 가장 먼저 정토불교대학을 시작했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통해 사회봉사와 함께 지역민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기 위함이었다. 교육과 전법, 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정토사 불교대학은 덕진 스님이 울산불교교육대학 창립 시 사무국장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정토사는 다른 전각보다 불교대학을 위한 공간을 우선 마련했고 이는 수강생 증가로 이어졌다. 1997년 처음 문을 연 정토사 불교대학은 주간반 170명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1999년 지역에서는 처음 개설한 야간반은 200여 명이 수강하기도 했다. 불교를 공부하려는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야 4개 반을 운영하며 연간 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45기 주야 2개 반과 3개월 과정의 기초 야간반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180여 명의 조계종 포교사를 배출했고 졸업생들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수행하며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배출한 졸업생은 3개월 단기과정을 포함해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불교대학원 경전반 과정을 신설해 현재 17기 주간반은 '화엄경 현수품' 을, 야간반은 '맛지마 니까야' 를 공부하고 있다.

정토사 불교대학은 불교 공부 외에도 태화합창단(주간 여성), 어울림 합창단(야간 혼성), 청소년 가람합창단, 민화반, 명상반, 싱잉볼, 오카리나반 등을 운영하며 불교대학 수강생들의 문화 수요도 충족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전법활동, 베트남 불자 정착 도움

덕진 스님은 울산 지역사회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장을 역임한 덕진 스님은 복지관과 재가노인센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해 오고 있으며, 어르신 무료급식소는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봉사단체 '함께 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울산처용문화제 운영위원, 울산사랑운동회 이사 등으로 위촉돼 활동했으며 현재도 울산시정책자문위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행을 하고 있다.

덕진 스님은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불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베트남 불자들의 한국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5년 베트남 불자들이 베트남 스님 초청 법회를 위해 정토사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했을 때도 흔쾌히 법당 사용을 허락했다.

당시 베트남 불자들이 스님을 부모님 모시듯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신심나게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덕진 스님의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 10월 국내 두 번째 베트남 사찰인 해원사가 양산에 개원하기도 했다.

덕진 스님은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즐기며 향수를 달래는 모습과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1990년부터 우리말 불교의식 보급

정토사는 창건 초기인 1990년대부터 우리말로 불교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어려운 한문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의식집을 만들었다. 1992년 〈문학세계〉에 정식 등단하고 4권의 시집을 낸 스님은 시대에 맞는 적절한 포교 수단으로 스님의 시에 곡을 붙인 '동해 갯마을' 과 같은 찬불가와 찬불동요 음반을 직접 제작했다.

이런 활동으로 2022년에는 덕진 스님의 시에 곡을 붙인 창작 찬불가 '언제나 기쁨' 과 '우리는 좋은 인연' 두 곡이 대한민국 찬불가요대상 작사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불자들에게 찬불가를 통해 새로운 신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그림이 주는 감동과 포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색칠하기 책 〈부처님과 내 마음 그리기〉 사경 사불 시리즈 전 6권을 출판해 미술치료와 그림공부를 겸한 불교 포교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스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널리 알아서 이해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책도 집필, 보급했다. 불교 천자문, 우리말 의식집과 행원참법, 그리고 산문집 '두번째 화살은 맞지마라' 등의 책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쓴 책들이다. 스님은 20종 26권의 저서를 집필하고 출판했다. 지금까지 낸 책들을 대중들에게 배포한 것이 불교의식집을 포함해 약 6만 권에 이른다. 이는 오로지 부처님 법 전하기 위한 원력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40년 넘게 부처님 전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덕진 스님은 부루나존자 그 자체다.



납골당 극락원과 불교대학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울산 정토사 전경.



2023년 3월 스님이 정토사 신도들과 문수로일대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덕진 스님 첫번째 선서화전 '부처님과 내마음 그리기' 를 둘러보는 참석 스님들의 모습.